

사바세계에 나투신 부처님을 기리는 불족의 열기는 농·어촌이라 하여 결코 시들하지 않다. 신도 수는 도심지역보다 적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 외에 틈틈히 짬을 내서 부처님 오시는 길을 밝히는 곳을 찾았다.

산 넘고 물 건너 오시는 부처님 맞이

3일 저녁 7시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내에 있는 천태종 영화사 법당. 주지 덕중 스님과 신도 10여명이 모여 함께 연등을 만들고 있다. 처음 해본 송씨는 아닌 듯 신도들의 손놀림이 능숙하다. 이렇게 저녁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연등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벌써 3개월째. 아직 초파일일 한달 정도 남았는데 왜 미리부터 부처님 맞이하는 걸까? 이사현 신도회장(67)과 맞대고 주고 받자 금세 의문이 풀린다. 40여 신도의 대다수가 농사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번기인 4-5월에는 낮시간에 사찰일을 할 여유가 없다는 게 이유다.

은 연등을 밝히기 위해 사찰내에 전기선과 장엄물을 설치하며, 20여명의 보살들은 연등을 만든다. 바로 이런 열의와 영화사 신도들은 수행의 연장이라 생각한다. 이사현 신도회장(67)은 '영화사는 주지 스님이 계속 주석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달

구석을 누비며 경내 청소와 보수공사를 한다. 또 사찰 운영에 필요한 물건과 부식을 사기 위해 1시간여 거리에 있는 춘천까지도 일주일에 몇 번씩 드나든다. 이렇게 봉축 준비는 물론 사찰운영까지 신도회가 주축이 되는 영화사에서는 매일 20일에

회날을 무척 기다린다. 이번 영화사의 초파일 행사는 전남인 18일에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그동안 신도들이 애써 만든 2백여개의 연등과 꼬끼리 장엄물 점등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또 초파일 당일날은 화천지역민들을 초청해 법요식을 치른다.



◇주지 덕중 스님(가운데)과 영화사 신도 10여명이 일과가 끝난 저녁때 모여 연등을 만들고 있다.

화천 영화사

특히 영화사는 신도 수가 적기 때문에 저녁때마다 조금씩 시간을 내어 부처님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주경야수(晝耕夜修)'는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수행을 한다. 영화사 신도들의 수행은 참선이나 절을 하는 것 뿐이 아니다. 4-5명 남짓한 거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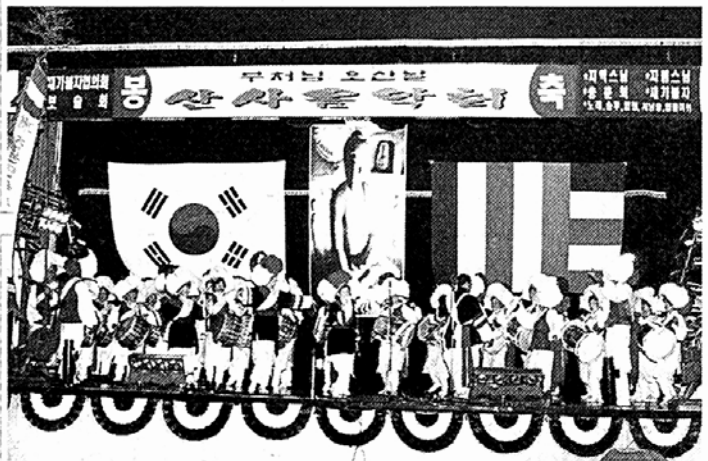
에 한 번씩 법회를 봉행할 때만 오신다'며 '특히 초파일 준비는 신도들이 일손을 모아 책임감을 갖고 4개월 전부터 하기 때문에 초파일을 맞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자랑한다. 영화사 김복수 총무(70)도 봉축 준비에 빼놓을 수 없는 숨은 일꾼이다. 고회가 된 노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찰 구석

주경야修 일년 넉달 전부터 준비

연등 2백개·꼬끼리 장엄물 18일 점등

법회가 열린다. 천태종 관문사 재무 소임을 맡고 있는 덕중 주지 스님이 서울에서 내려와 신도들과 함께 법회를 봉행한다. 한달에 한 번씩의 짧은 만남인지만 신도들이 주지 스님을 맞는 반가움은 더욱 크다. 특히 한달동안의 절살림과 수행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여서 신도들은 법

덕중 주지 스님은 '신도들이 낮에 농사 짓는 생업도 수행이고, 저녁때 사찰에 나와 봉축 준비를 하는 것도 수행의 연장이라고 항상 가르친다'며 '봉축행사 규모는 도심 사찰보다 작지만 봉축을 맞는 정성과 열정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화천 = 김주일 기자 jkim@buddhapa.com



◇1일 거제 시내체육관에서 열린 '산사음악회'에서 거제 청년회원들이 사물놀이를 공연하고 있다.

한반도의 남단 거제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거제도 불심이 모여 거제도 전역에 부처님 오신 참뜻을 전하며 예년 초파일때와는 확연히 다른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거제도대가 옥지와의 연결로가 되긴 하지만 섬 특수성을 간직해 거제도

되기전부터 축제 분위기로 슬렁인다.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거제시민을 위한 마련 문화행사인 '제1회 거제시민을 위한 산사음악회'가 열린 1일, 거제시내체육관은 아침부터 행사준비로 분주했다. 산사음악회를 기획한 계룡사(주지 지연)의 봉

오허리 그 어려움이 거제 재가, 청년들 자들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로 작용해 거제거사협회, 거제불교청년회, 대우불교청년회, 보현법우회 등 청년과 재가 단체가 모두 음악회 준비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고현, 옥포, 장

에 앞장섰다는 것이 가장 기쁘다'는 보살회 안순남 회장은 '많은 거제 시민들이 불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음악회의 의미를 전했다. 양정식 거제시장을 비롯해 1천여명의 거제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음악회에서는 지법 스님의 찬불가, 가수 송준희씨의 공연과 함께 보살회, 장흥사 합창단의 합창, 승무, 시낭송, 금강유치원의 어린이 합창 등이 공연됐다.

산사음악회로 축제 막 올라

체육대회·연합제등 행렬 계획

의 봉축 분위기는 소극적이고 침체됐던 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봉축 준비는 각 사찰단위로 조용히 진행될 뿐 시민들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지는 못했기 때문. 그런데 올해 거제도에는 새바람이 불었다. 거제 청년, 재가불심이 하나가 돼 초파일일

사단체 보살회 회원들을 비롯 거제 불교청년회와 재가 불자들이 한마음이 됐다. 그러나 '산사음악회'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다. 처음 열리는 큰 행사이고 보니 기획단계부터 소소한 준비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속출했다. 하지만

거제도 봉축맞이

승부 등 지역별로 나눠 활동 해오던 재가 불자들의 연합회를 구성하자는데 뜻을 모으면서 이번 봉축준비를 통해 거제는 승가와 재가의 화합된 힘으로 포교의 새 장을 여는 단초를 마련했다. '모든 불자들이 힘을 모아 거제시민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일

이렇게 산사 음악회로 시작된 거제도의 봉축 행사에는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초파일전까지 청년회원들이 중심이 돼 체육대회와 연등 만들기 등 갖가지 행사들이 열렸다. 또 초파일 당일날에는 봉축 법요식과 연합제등 행렬이 봉행된다. 거제도 = 천미희 기자

매번 받기만 했던 우리가 이번에는 직접 마련한 음성공양을 신도님들께 드립니다.

사람이 알려지면서 부터다. 설문조사를 통해 장병불자들이 법회참석외에 또다른 신생활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된 혜승 스님이 신도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음성공양을 생각해 냈다. 특히 장병 불자들을 천이처럼 챙겨주던 어머니 합

노래로 풀 수 있다면 신심도 돈독해 지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신생활 등이라 생각했다. 군불자중창단 창단 동기를 설명했다. 김보살은 즉시 의정부포교원에 나오는 인근 군부대 장병불자들에게 이런 뜻을

수 없는 군인 신분인지라 훈련, 파견, 휴가 등으로 빠지는 인원이 많았고 마음놓고 연합할 장소조차 없었다. 이런 어려움을 안 혜승 스님이 법당 내에 연합할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찬불가를 지도할 지도교사도 추천해 주었다. 오영일 병장



◇일요일법회가 끝난 뒤 나정원 지도교사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찬불가연습을 하고 있는 의정부 포교원 군불자중창단.

의정부 포교원

군불자중창단 음성공양준비 한창

"지원해준 신도들께 자비법음 '흠뻑'"

이번 공연에서는 '하늘과 땅위에 이보다 존귀한 이 없네' 등 여러곡의 음성공양을 불자들에게 선보인다. 법회 참석 외에 특별한 신생활은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장병불자들이 이번 이벤트를 하기로 마음먹은 데에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지난해 가을 의정부포교원이 실시한 신도대상 설문조사에서 장병불자들의 희망

창단 김명현 보살(45)은 이 고민을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섰다. 김 보살은 '의정부 포교원에는 어머니합창단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장병불자들에게 찬불가 지도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군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전달하자 이 일은 급류를 타듯이 빠르게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 지난 1일 군불자중창단을 창단한 김 보살과 장병 불자들은 봉축 준비의 일환으로 초파일 음성공양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우선 자유롭게 시간을 낼

의정부 = 강유신 기자

"코골이, 당뇨, 암, 특효"

(코골이 연구 10년)

KBS 2002. 3. 13 토요일 아침 방영
MBC 1999. 8. 7 고향은 지금
경양위 제365호 특허 13629출원

오랜 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육학+음양오행+신통력+선도특수법+천지 민간 약초로 수년을 연구하신 백련스님

공기오염 자동차 매연 오염된 물 농약에 찌든 채소과일등으로 현대병이 많은 이런 분께 드리겠습니다.

1. 오랜 세월 코골이와, 비염, 축농증 고생하신 분
2. 간 복수전체, 각종 암 생사에 허덕이시는 분
3. 만성변비, 약 드실 때만 괜찮고 재발 하신 분
4. 당뇨병으로 수년간 고생하신 분
5. 류마치스 관절염, 신경통 산후병 고생하신 분
6. 위장병 고민하신 분

이 제품은 깊은 산중에 자생하는 약초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모든 제품에 효능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달마사 불사에 쓰여집니다.

● 단위능협 813015-56-022193 정광채

TEL. 055-385-0065~6
H.P. 011-570-3357

우스이레이키(Reiki 靈氣)가 왜 화제인가!

- 3월만 배우면 됩니다 -
- 탁월한 우주 생명에너지 이용법입니다 -
- 건강 전체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생명에너지입니다 -

일본의 정도진종의 구도자 우스이 미카오(1865-1926년)가 교토의 신숙에서 21일간의 치절단 단식행상 끝에 받게 된 초자연적 에너지와 감응하고 그 영향을 체계화하여 레이키라고 이름지은 이래 레이키는 전세계 50개국 이상에 보급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부터 미국을 통해 전세계로 보급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사상을 거치다 보니 본래의 내용이 빠지고 에너지의 질에 차이가 생긴 것들도 도처에서 생겨났습니다.

지(역)행(진)은 많은 길래의 레이키를 고구루고 외에서 행했지만 특히 일본에서 소수의 인들에게만 전해지는 우스이씨 본래의 어원론(능력적수절차) 기법과 에너지 들 전수받고 더욱 개량한 끝에 3월이래는 최단기간에 우스이 레이키 제3단계 까지 전수하는 일을 1998년 부터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3월 교육제도도 일본, 미국의 어떤 레이키 교육기관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 우스이 레이키(교육기간 3단계까지 3월, 교육비 70만원)
교육내용 : 우스이 레이키 발명법, 12지료점 지료법, 금안상질원에 대한 원격지료법, 동식물 지료법, 악물 음식물 등에 대한 에너지지료법, 생활의 여러방면에 걸쳐서 레이키를 활용하는 법, 박의준식 레이키 특출법(본성 자생 풍성) 활성화법 등.
2. 카루나 레이키(교육기간 2달 교육비 5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우스이 레이키를 배운분이 다음 단계에서 배우는 새로운 레이키입니다. 9종류의 효를 요법에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끝난 1개월 후에는 카루나 레이키 제법법 등을 배웁니다.
3. 연대보살은 우스이 레이키, 카루나 레이키 10%씩 앞인 혜택을 드립니다. 우스이 레이키, 카루나 레이키 일괄등록 103만원

현대 생활 레이키연구회 대표 박희준 (그랜드 마스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 전화 : 021720-5682, 720-5719, 팩스 : 021720-5720
◇ 핸드폰 : 019-392-2557, 018-850-1680

관절염 자가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활액순환장애 디스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 내릴 때 무릎이 쉬고 저리는 경우 자가생환(自生丸)을 복용 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자가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인숙의학자 권재우 응(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제주 불교 성지 순례

"불교문화체험 제주관광과 함께"

- 1일: 제주공항 도착 → 관음사 → 진왕사 → 도개비도로 → 점심공양 → 존자암(신라시대) → 법안사 → 약천사 → 저녁공양 및 철야정진
- 2일: 아침공양 후 사찰 출발 → 월드컵경기장 → 유림선승선 → 마라도도착 기원장사 → 점심공양 → (산정굴사 → 소인국테마파크 → 저녁공양 및 호텔(or 불사리탑)
- 3일: 아침공양 후 호텔 (or 불사리탑) 출발 → 산굴부리 → 성음민속마을 → 점심공양 → 섬지교지 → 종달리에 안도로 → 톨밭사 → 공항

※ 현지 사정에 의해 일정이나 코스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출발지	숙박	요금(원)	포함내역
서울	시찰 1박, 호텔 1박	219,000	* 왕복항공료
부산	시찰 2박	204,000	* 호텔 1박(4인 1실)
대구	시찰 1박, 호텔 1박	188,000	* 공항비 (시찰공양비 포함)
광주	시찰 2박	173,000	* 관광지 입장료 (유림선로 포함)
충주	시찰 1박, 호텔 1박	197,000	* 차량료
군산	시찰 2박	182,000	* 주차료
	시찰 1박, 호텔 1박	187,000	* 여행정보료 (최고 5천만원)
	시찰 2박	172,000	

성지순례전문여행사 (주) 다도문화기획 · 투어
TEL. 064) 724-1185~6